



1 농산어촌유학 환영식에서 장석웅(왼쪽) 전남교육감, 조희연 서울교육감, 학생들이 소원을 적은 종이비행기를 날리고 있다. 2 농산어촌유학추진을 위한 업무체결식에 참석한 장석웅(왼쪽) 교육감과 조희연 교육감 3 농산어촌유학 프로그램

# 코로나19 시대, 전남교육의 기초학력지도는 특별합니다



## 기초학력 전담교사제 시행

초 1, 2학년 읽기·쓰기, 셈하기 전담교사 일대일 맞춤 지도

## 전남기초학력지원센터 운영

예비 교사(대학생) 멘토, 기초국어, 기초수학 등 학습코칭 지원

## 전남교실ON.com 개발

수준높은 원격수업 콘텐츠로

대한민국 코로나19 극복 우수사례 선정(기획재정부)

## 서울 학생 82명, 전남교육 품에 안기다 전남교육청-서울교육청, 농산어촌유학 프로그램 운영

서울에서 학교에 다니던 초·중학생 82명이 전남교육 품에 안겼다.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장석웅)과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이 협약을 맺고 공동 추진하는 전남농산어촌유학 프로그램에 참여한 아이들이다. 이들은 지난 3월 2일 2021학년도 새 학기 시작과 함께 전남 학교로 전학해 전남교육 가족의 일원이 됐다. 두 교육청은 지난해 12월 7일 서울 학생들이 전남농산어촌 학교로 전학해 생태 친화적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유학프로그램을 공동 추진하기로 업무협약을 맺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협약 후 서울 지역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유학생을 모집한 결과 초등학교 66명, 중학생 16명 등 모두 82명이 최종 전학을 결정했다. 유학은 ▲ 가족 전체가 전남으로 이주해 생활하는 '가족 체류형' ▲ 학생이 농가에서 생활하는 '농가형(홈스테이)' ▲ 해당 지역 유학센터(기숙사)에서 생활하는 '센터형'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이들은 전남 지역 20개 학교(초 13, 중 7)에 다니며 지역으로는 순천과 화순·강진이 각 3개, 담양·곡성·영암·신안이 각 2개, 장흥·해남·진도 각 1개교 등으로 전남 10개 시·군에 고르게 배정됐다. 전남 학교에 전학한 서울 학생들은 최소 6개월 이상 생활하면서 현지 학생과 더불어 소규모 개별화 수업을 받고, 전남의 친환경 식자재로 만들어지는 건강한 급식을 받으며 생태환경이 잘 보전된 마을에서 성장하게 된다.

전남교육청은 개학 나흘 전인 2월 26일에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에서 환영식을 열고 전남 학교로 전학 오는 서울 학생들을 뜨겁게 맞이했다. 환영식에서 서울 학생들은 장석웅·조희연 두 교육감과 함께 전남에서 생활하는 동안 해보고 싶은 것, 바라는 것을 종이비행기에 적어 날려 보내는 특별한 추억을 만들었다. 전남의 농산어촌에 소재한 작은 학교들은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어 코로나19 시대 감염병 예방에 유리하고, 개별 맞춤형 교육이 가능하다. 농산어촌유학은 전남 작은 학교의 이런 장점을 도시 학생들과 공유하는 프로그램으로, 전남 작은 학교 살리기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 인구 유입 효과도 기대된다. 장석웅 교육감은 "유학생들이 전남의 넉넉한 인심을 몸소 체험해 제2의 고향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면서 "올해 사업을 기반으로 경기도,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등과도 협력해 사업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희연 교육감은 "전라남도교육청이 최선을 다해 농산어촌유학을 추진하고 정성껏 준비해준 데 대해 감사하다"며 "'흙을 밟는 도시 아이들'이 자연과의 회복을 만들어가는 생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란다."

